

## 안전 '질식'...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노인 등 21명 사망  
치매 80대 용의자 체포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은 뒤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28일 새벽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라나눔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21명이 숨졌다. 소방관이 요양병원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단 6분 만에 입원중인 중증 노인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2·3·4면>

300명이 넘는 중증 환자를 관리·보호할 근무 인력이 부족한데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 점검과 미흡한 소방 규정 등이 더해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새벽 0시 27분께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라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별관 2층 건물(4656㎡) 다용도실에서 불이 나 장년(53)씨 등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김귀남(여·52)씨가 숨졌다. 또 오병남(89)씨 등 8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위독,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 2분 만인 새벽 0시 33분 큰 불을 잡는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다용도실 내 매트리스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2층 전체 병실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21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 피해가 났다.

당시 불이 난 건물 2층에는 70~80대 고령 환자 34명이 10개 병실에 머무르고 있

었다. 이 때문에 불이 나자 거동이 가능했던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 환자 20명은 병상에 누워 있는 채로 유독가스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연기에 질식사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별관 2층 근무 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병원 자체 야간 근무 인력보다 8명이 부족해 고령의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에 대한 미흡한 소방법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해 유가족들은 아울러 병원 측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환자 손을 묶었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다.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조무사 김귀남씨는 다른 직원에게 화재 사실을 분관에 알리고 신고하라고 당부한 뒤 환자 불을 끄겠다고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에 뛰어 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철구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는 한편, 병원 내 CCTV를 통해 화재 발생 직전인 새

벽 0시26분께 최초 발화지점인 다용도실을 출입한 김모(81)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정확한 화재 원인과 병원 측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병원측은 사고 발생 후 '죽을 죄를

지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고 "병원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장례비로 우선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 문제는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윤장현 변화 세력 vs 기득권 세력

### 강운태 시민 공천 vs 낙하산 공천

#### 광주시장 선거 '구도 짜기 전쟁' 치열

#### ① 선택 6·4 지방선거 D-6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는 상대 후보를 불리한 구도에 묶어두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막판 전략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이번 광주시장 선거를 '변화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한 판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광주의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 세력(윤장현)과 과거 세력(강운태)'의 한 판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광주의 변화와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전략공천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윤 후보는 "자신의 승리는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 2017년 정권 창출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광주시민에 '전략적 선택'을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희생과 헌신'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광주정신에 충실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시

민공천 대 낙하산 공천'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단일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시민 공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략공천'을 받은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 후보의 승리를 전략공천 심판과 정의로운 광주정신의 구현으로도 연결시키고 있다. 강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인물론'과 '논물론'도 확산시키려는 방침이다. 광주시장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인물론'으로 윤 후보를 몰아세우는 한편 전략공천에 희생된 이용섭 전 의원의 '논물'을 기억하자며 광주 민심의 감성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정계 관계자는 "광주 민심의 저변에는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충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6·4 지방선거 현장

격전지를 가다  
여수·순천·광양 ▶7면  
표발 점검 - 진도군수 ▶12면

## 안대희 총리 후보직 사퇴

'전관예우' 발목... 靑 부실검증 다시 도마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 6일만에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며 사퇴했다.

그는 이어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낙마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후보직 사퇴에 이어 두번째다.

안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피아) 척결 등 강도 높은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려던 박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6·4 지방선거를 전후한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부와 청와대의 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면서도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후보직 사퇴 발표를 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제가 국민께 약속한 부분은 성실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그간 국민이 보내준 분에 넘친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지명된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후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45일째  
28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4면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 추락한 학력

# “학”

끌어올리겠습니다!!

김영수가 약속합니다

- 약속 1 성적 '학' 끌어 올리겠습니다!
- 약속 2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하겠습니다!
- 약속 3 사교육비 대폭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 약속 4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하겠습니다!
- 약속 5 다양한 장학생 확대 선발하겠습니다!
- 약속 6 글로벌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 약속 7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영수는  
• 함평초·중·합천고등학교 졸업 • 목포대학교 통학생회장 • 광주교육대학교(아간)학생회장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박사 과정 재학 (2008. 9~2010. 9)  
•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임 • 동부교육청 장학사 • 교육연구사 •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년별지원장  
• 삼도초등학교 교장(광산구) • 2009~2013 월드비전스 회장 역임  
•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 상담교원 • 가마초등학교 광주광역시 수석부학장 • 호남상록수문학회 광주 실무회장(사단)

선심성 무상공약을 남발한 전교조식 교육과 정치적 교육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성적 하락 및 공교육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김영수는 추락한 광주의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사 수업 공개 등 학원에 맡겨진 성적을 교사가 책임지게 하여  
학교 교육만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청소년들이 저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학생을 위한 교육감 김영수